



내 삶의 모험이신 하느님

영산수련에 따른 성서 묵상

심종혁 지음 · 최봉자 그림

성서와함께

내 삶의 모험이신 하느님

영신수련에 따른 성서 묵상

심종혁 지음 · 최봉자 그림

성서와함께

차례

머리말 . 5

1. 내 삶의 모험 한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 . 11
2. 기도는 하느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듣는 것 . 22
3. 창조주 하느님을 신뢰하며 기도드리는 순례자 . 32
4. 우리는 하느님의 비밀 . 42
5. 사랑과 현실 . 53
6. 죄 앞에 선 인간의 비참한 모습 . 65
7. 용서는 새로운 창조의 손길 . 75
8. 세상을 준비하시는 하느님 . 85
9. 강생은 아픔 속에서 새로이 자라나는 희망의 상징 . 95
10. 희망의 탄생 . 106
11.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 116
12. 그리스도교 영성의 샘 - 광야 . 127
13. 식별 - 기도와 활동의 기점 . 138
1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예수님의 가르침 . 151

15. 사랑의 혁명	·	162
16.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	·	173
17.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	·	183
18.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신 예수	·	193
19. 사랑의 이중 계명 - 예수님의 전 생애 요약	·	203
20. 화해, 일치, 봉사 -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적 삶	·	214
21. 고뇌하는 인간상	·	224
22. 예수 수난기 - 사랑의 극치	·	235
23. 기쁨의 근원 - 부활하신 예수	·	247
24. "주여, 나를 받으소서" - 하느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	·	257
맺는말	·	266
성서구절 찾아보기	·	267

일러두기

이 책에서 인용한 구약성서 구절은 「공동번역 성서」(대한성서공회, 1977)에서, 신약성서 구절은 200주년 「신약성서」(분도출판사, 1991)에서 따왔습니다. 달리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성서를 밝혔습니다.

머리말

끝을 갖춘 하나의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83년 12월 예수회 연학수사로서 사제가 되기 위한 신학과정을 밟으러 미국 보스턴으로 건너갔다. 그 곳 웨스턴 예수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하면서 외국 생활에 적응해가며 겪은 어려움, 이제껏 공부해온 물리학이라는 자연과학 영역과 신학이라는 인문사회과학 영역과의 차이점 때문에 겪는 이질감, 실습기를 통해 집중적으로 사도직 일에 투신해서 살아온 지난 몇 년과는 달리 이제 공부라는 연학시기로의 전환 등 여러 전환을 한꺼번에 치루면서 마음에서 혼란을 겪었다.

그 때 예수회 연학 수사로서 보스턴 한인 공동체를 위해 주일미사 후에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성서공부를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서공부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둘째 해에는 욕심을 내어 생활 속의 영신수련이라는 맥락에서 그 곳 신자들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영신수련」의 흐름에 따라 나름대로 30개의 성서 영성 주제를 선정해 신자들을 위해 강의했다. 지금까지의 나의 생애에서 이 때가 가장

힘이 드는 시기였기에 그만큼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서 강의록을 만들었다. 언젠가는 한 권의 묵상서적을 만들 막연한 꿈을 꾸면서 말이다. 이 때 만든 30개의 「영신수련」 관련 주제에 대한 메모식의 강의록이 그 후에도 이곳 저곳에서 하게 된 영성강연이나 피정강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나의 아픔과 정성이 동시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에 나에겐 무척이나 소중한 보물이기도 했다.

로마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1992년 2월 귀국해서 서강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도 수도회 안에서 맡게 되었고, 이런저런 기회에 수도자,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을 위해 피정도 지도했다. 메모식의 강의록을 언젠가는 조용히 자리잡고 앉아 차근차근 써야겠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성격의 탓인지 환경의 탓인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총원장이시지만 그 당시엔 「성서와함께」의 책임자이셨던 김 리드비나 수녀님께서 1995년 1년 동안 영성에 관한 글을 연재해 주겠냐고 부탁하셨다. 나는 오히려 2년 동안 24개의 연속성 있는 글을 써드리겠다고 약속드렸고, 그 결과 1995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이 책의 골격을 이루는 내용을 연재했다. 최봉자 수녀님께서 묵상과 연관된 성서 장면을 그림으로 그

려주셔서 글이 훨씬 돋보이게 해 주셨다.

이 연속적인 주제들은 「영신수련」에 의해 전개되는 피정의 흐름을 따른 것이기에, 성서묵상을 위한 보조자료들을 첨부해 한 권의 피정묵상 안내서의 성격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연재가 끝난 후에도 잠시잠시 앉아 작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마무리하였다.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고마움도 있다.

이 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 이나시오 로올라의 「영신수련」에 따른 성서 묵상서이다. 본문 내용을 피정 강론이라 여기고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거리를 추릴 수 있고, 제시된 묵상성구 중에서 선택해 묵상을 하거나, 성찰을 위해 제시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으며 기도할 수 있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추구하는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부끄러움과 미숙함이 솔직히 그대로 담긴 글이기에 하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1998년 8월 15일
서강대학교 다산관 연구실에서
심종혁 신부

내 삶의 모험 한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 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 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느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 43,1-4)

관대한 마음의 내적 태도

수도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늘 지니고 싶어하는 마음은 관대한 마음의 태도이다. 매해 연례피정을 시작할 때마다 '아낌없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관대한 마음가짐을 지니기 위해 애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 관대하고 아낌없는 마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러한 관대한 마음의 내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기도의 여정에 있어서는 엄위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지니게 된다. 즉 창조의 웅장한 신비를 묵상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위엄하시고 너그러우신 사랑에 감동되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 피조물이 자기 존재의 뿌리이신 창조주께 보여드리는 이 태도가 바로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다.

관대한 마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 즉 우리가 마음 속에서 지니는 모든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근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바칠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라고 고백하는 의미인 것이다. 성서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계속된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라고 시작하는 이사 43장의 첫머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창조주 하느님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 이것은 단지 과학적으로 하늘과 땅이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희망 역시 오직 하느님에게 그 원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났다거나 가장 힘세고 가장 문화적이며 성공적인 민족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오히려 힘이 약하고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민족이라고 고백한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에 의해서만 그들의 완성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과 완성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에 오직 그분께만 희망을 두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은 하느님께서 믿는이에게 베풀어주시는 선물이다.

나의 구원이신 은혜로운 분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면서 오직 당신께만 희망을 두라고 요구하시며 건네시는 첫마디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 주지 않았느냐?”이다. 우리는 성서 곳곳에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접한다.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만나 뵈는 체험은 새로운 구원의 경험이 된다. 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 체험을 되새겨주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에 담겨진 과거 체험은 어떠한 체험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이라는 민족적 체험이었다. 기도란 이처럼 자신이 겪은 과거의 구원 체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기억하고 되새기는 행위로서, 이 행위 안에서 기억되는 구원 체험은 이미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서 새로운 하느님 체험이 되어 오는 신비인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까? 인간이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결코 위협이나 폭력 앞에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공포심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크시고 놀라우신 하느님을 향해 지니게 되는 매혹적인 두려움(*mysterium tremendum et fascinans*)일 것이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이것을 하느님의 크신 사랑의 빛 아래에서는 아주 미소한 죄스러움도 선명하게 드러나기에 그 죄스러움 때문에 그분께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픔 안에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지극한 위로와 기쁨이 담겨져 있다고 표현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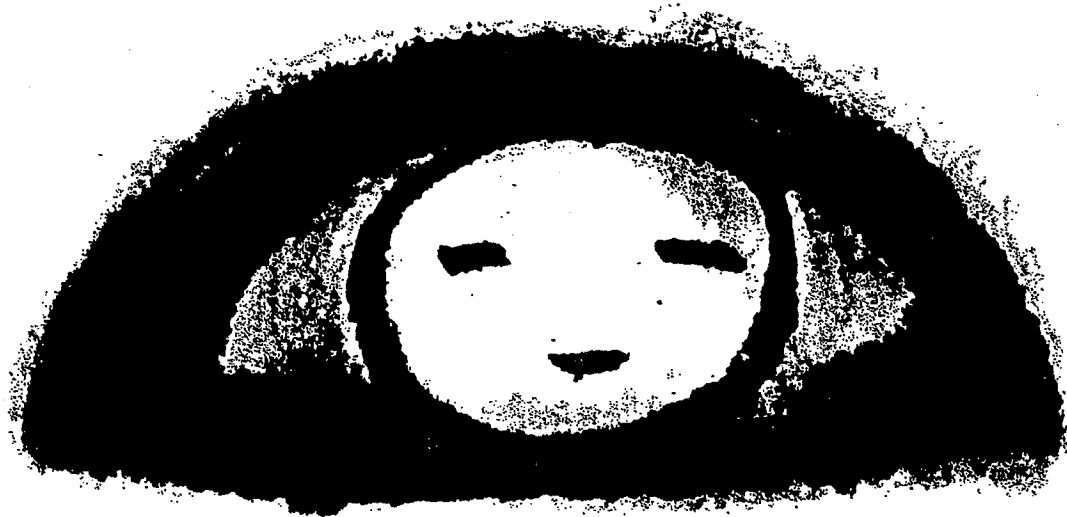
엄위하시고 지존하신 하느님께 보잘것없는 인간이 드려야 하는 공경심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표현인 것이다. 때로 우리는 하느님을 가까운 친구의 모상으로 그리면서 그분과 나누는 친밀감을 표현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친

구로서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니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름잡으시는 엄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압도해 두려움 속으로 몰아 넣으시지만, 그 안에서 어떤 매력적인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다.

우리의 소명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름, 즉 우리가 받은 근본적인 소명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참다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교리시간이나 수도자들의 영성교육 시간에 너무나도 자주 들어온 것처럼, 참다운 자신이 된다는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과 올바르게 건강한 관계를 맺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로 진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네 가지 다른 양상의 관계, 즉 하느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주위 사물과의 관계라는 4중 관계의 맥락 속에서 살고 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느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모습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나의 모습을 한 가지 예로 들면, 나는 키가 작고 몸집이 작 으면서 동시에 유난히 어리게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 서부터 신체적인 조건에 관해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체육이나 교련 등은 나에게 부담과 두려움을 주는 시간들이 었고, 덩치가 큰 학우들을 늘 두려워했다. 자신의 약점과 잘 못들을 감싸주어야 한다고 들어 왔고 배워 왔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적 왜소함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학대했다. 상처는 감싸주어야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심에 서는 늘 자신의 약점을 구박하고 부정적으로 대해 왔고, 때 로는 하느님께 “어찌하여 나를 이 모양 의 꼴로 만드셨는가 요?” 하며 한탄조로 기도하기도 했다.

분명히 우리는 자기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하느님을 대 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이러한 태도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 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허망한 이 상을 만들어 타인에게 투영시키며, 때로는 자신의 열등감을 은폐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거나 자

기 과시에 빠지기도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며 사랑해 주신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앎은 단지 머리에서만 아는 것일 뿐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머리에서 아는 것이 잠시나마 마음 속으로 흘러 내려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해야 한다.

하느님을 만나는 모험

하느님께서서는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 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계속 말씀하신다. 성서에는 물결, 강물, 불길 등의 상징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징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좌절들, 걱정들, 위험들, 모험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못 견디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없애 주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러한 삶의 위험들, 걱정거리들, 어려움들을 없애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 안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낭만적인 환상 속의 어려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려움이다. 어려움과 고생스러움을 낭만적으로 그릴 때 우리는 쉽게 헛된 망상에 빠져버린다. 사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들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것들이다. 너그럽지 못하고 좁아터진 마음의 태도, 관대하지 못한 마음의 태도가 이러한 작은 문제들을 심각하고 거대하게 만들어 신경을 거스르게 만들고 오히려 나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느끼게 한다.

나 자신의 수도생활을 돌아해보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참아 견디겠다고 마음먹고 성인이 되기를 다짐하며 수도회에 입회했지만, 며칠이 지나는데 사이에 오히려 가장 작은 자기 희생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찮고 사소한 일로 동료와 마음이 상하는 내면의 상을 접하게 된다. 참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커다란 그 무엇이 아니라, 삶의 자질구레함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일 것이다. 하느님께서도 결코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내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다. 바다 생선은 소금물 속에서 살지만 그 고기는 싱겁다. 바다 물고기는 생명력 있게 살

아 있기에 소금물인 바닷물 속에서도 절여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금방 소금물 속에서 절여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절이지는 못할 것이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좌절들 속에서도 그것에 의해 죽지 않고 오히려 생기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신앙이고, 모든 희망이 오직 그분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

그렇기에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 즉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아주 중요하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다. “두려워 말라”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생의 여러 모험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오로지 당신께만 신뢰를 두라고 요구하신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적 재능과 능력에 더 많은 신뢰를 둔다. 효율과 생산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현대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만 하는 가치관일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제기되는 근본적인 도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근본 생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것은 하느

님께만 희망을 두는 과감한 투신, 즉 삶의 모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넘어지고 부서지더라도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신앙의 확고한 투신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우리 마음 속 깊이 지니고 있을 때, 삶의 모든 모순과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갈등들은 오히려 하느님을 만나는 모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의 모험이시기 때문이다.

묵상 성구

- | | |
|------------|---|
| 이사 43,1-7 |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
| 시편 8 |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 주시나이까! |
| 요한 14,1-15 | 여러분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시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시오. |
| 예레 1,4-10 |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
| 호세 6,1-6 | 어서 야훼께로 돌아가자! |
| 이사 55,1-13 |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

생활

1. 내가 만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삶의 언제 어느 영역에서 그분의 사랑과 배푸심을 깊이 체험했습니까? 내 삶을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과 사랑의 도우심을 늘 의식하고 있습니까?
2. 하느님의 현존 앞에 나설 때 즉각적으로 두렵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영역은 내 삶의 어느 부분입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나의 모습, 하느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는 하느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듣는 것

어서 와 야훼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랫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야훼는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

어서 와 허리 굽혀 경배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야훼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니
“므리바에서, 그 날 마싸 광야에서의
너희 선조들처럼,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말아라.”
(시편 95,1-3. 6-8)

우리의 희망, 진리이신 하느님

“진리는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요한 8,32)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오히려 진리에 대한 여러 편견으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이는 그릇됨 앞에 굴하지 않는 날카롭고 도도한 모습으로 진리를 연상하고, 또 어떤 이는 그릇됨마저 감싸줄 수 있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모습의 둥글둥글한 진리를 그린다. 서로 다른 진리의 영상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지녀 진리의 이름으로 서로 다투기까지 하며, 심지어는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배은망덕한 태도로 맞서기도 한다.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 이러한 진리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겠다. 진리에 대한 그릇된 편견은 불신앙의 원천으로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 넣는다. 하지만 참진리이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자유는 진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생활의 리듬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진리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우리는 진심으로 하느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

구약성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다우신 하느님을 서서히 깨달아 가는 신앙의 내적 여정이 담겨 있다. 이러한 종교전통을 담고 있기에 참다우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 태도를 가장 깊이 배울 수 있는 책이 성서이다. 그야말로 성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 안에 담긴 종교적 영감과 희망을 비롯한

다양한 영적 전통이 전해진다. 도도하게 흐르는 성서 영성의 물결 속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객관적 진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체험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특별히 시편집은 하느님의 사랑 많으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뢰와 고뇌를 담고 있는 기도서이다. 즉, 시편집을 통해 하느님을 향한 신뢰심 깊은 인간의 고뇌와 사랑은 삶의 체험이 지닌 다양한 영상들과 더불어 기도로 변화되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새롭게 울려나온다. 그렇기에 교회의 기도서인 '성무일도'와 찬례송을 비롯한 다양한 기도 양식에서 시편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도가 된다.

여러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95편은 전세계의 성직자·수도자들이 매일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바치는 첫 기도이다. 먼저 "어서 와 야훼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하며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느님을 향해 기쁨을 노래한다. "님 위해 우리를 내시었기 님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찻찻하지 않삽나이다"('고백록'1) 하신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내적 평안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 기쁨은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날뛰나이다' 하신 성모님의 기쁨과 일맥상통한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참다운 안정과 기쁨을 갈구한다. 그것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이든, 이 영적 갈망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우리를 움직여 이끌어 간다.

마음 속에서 추구하는 그것이 성취되어 얻어지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끝없이 방황한다. 시편 저자가 "구원의 바위"라고

부르신 하느님께 이르러서야 무엇인가를 찾아 방황한 마음의 노고를 멈추게 될 것이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느님께만 있고, 그분만이 실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리라고 고백하도록 촉구한다. 내가 이루어 온 그 어떠한 명예나 업적도 결코 나를 편안하게 해주거나 모든 안정의 기반이 되어 주지는 못한다. 오직 마음의 진실을 통해 발견하는 진리이신 하느님만이 내 삶의 튼튼한 기반이 되실 것이다. 그렇기에 무게 있게 자리잡은 바위의 영상으로 그려진 하느님의 모습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과 안전의 기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이다.

내면을 두드리는 하느님의 말씀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단지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 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육화하시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진정 높으신 하느님이시며, 삼라만상 온 우주를 지어내신 분이시다. 나를 존재케 하였고,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시는 분이시다. 창조의 업적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폭넓은 사랑은 나의 창조에 이르러 구체적이고도 인격적인 사랑으로 변모되어 부각된다. 당신의 생명 속에 나의 생명을 담아 키운 어머니의 친밀하고 정성어린 사랑처럼, 하느님의 사랑은 생명의 원천으로 내 생명을 기르시는 친밀한 사랑이시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

시고 내 생명의 숨결보다 더 깊이 나와 더불어 계신 분이시다(시편 139편 참조).

늘 함께하는 가운데 친밀감은 자란다. 하느님과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느님과의 친밀감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친밀감 속에서 인격적 사랑이 움터 나온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인격성은 육화의 신비를 통해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육화의 신비란 “우리가 듣고 우리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처하시는 신비를 말한다(요한 1,14; 1요한 1,1).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머무신다. 성서 안에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거처하시고, 만물 속에 그 근원으로 머물러 계시며 삶의 구체적 체험 속에서 사랑의 동기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느님과의 친밀감은 더욱더 자라게 된다. 이것이 기도이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기도의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된다. 하느님과의 친밀감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친밀한 사랑이 주는 생명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로마 8,33-39 참조).

하느님께 드리는 경외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은 더욱 고양된다. “어서 와 허리 굽혀 경배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야훼께 무릎을 꿇자.” 하느님께서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민족을 이루신 계약의 하느님이시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

님께 허리를 굽히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 경배드림은 창조와
구원적 사랑의 엄위하심 앞에 압도된 피조물의 자발적인 신
앙태도이다. 이제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관
대한 태도가 준비된 것이다.

피조물의
자발적인 태도

여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예언자적 경고의 말씀으로 그
단호한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
리니……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말아라.” 하느님의
말씀은 지나간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이 자리
이 순간에 들려오는 말씀이다. 말씀의 현존은 그 자체가 예
언적 도전이기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쌍날칼 같다고
말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췌뚫으며 마음의 생각과 의향을 판단합니다”(히브 4.12). 어
느 날 하느님의 말씀이 내 내면의 어두운 구석을 파고들어
자극을 주고 게으름을 일깨우거나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는
체험을 가끔씩 하게 된다. 무심코 읽은 성서의 말씀이 그 순
간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
저 듣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 온 성서 말씀이 비로소 생
명을 주는 말씀으로 새롭게 인식된다.

※

기도는 사랑의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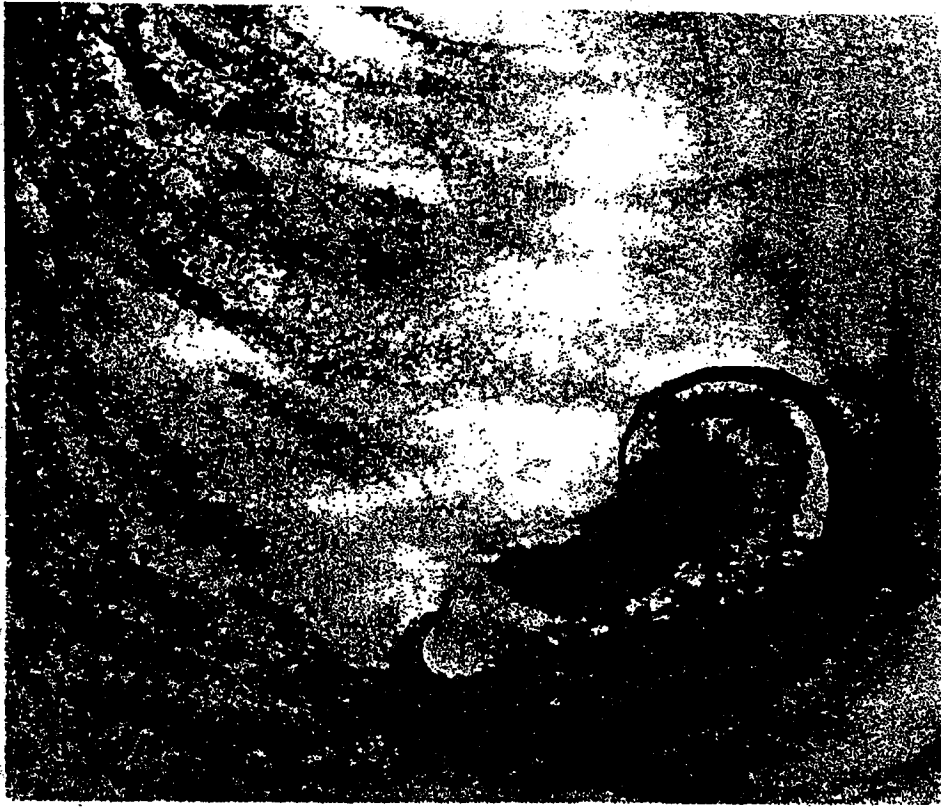
신앙은 단순히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기보다는 그 믿는 내용
에 담긴 가치관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

하기에 행동양식 혹은 생활양식을 반영한다. 즉 어떤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지킨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선하는 적극적 태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체적 사랑은 성서 안에서 가시적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신앙의 눈에 의해 그 성서에 담긴 구원의 진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으로 새롭게 육화된다. 육화된 구원의 진리는 하느님 나라의 표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 세상에 현존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바로 하느님 나라가 구체적 삶 안에 자리잡아 세상에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맺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그렇기에 사도 성 바울로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의로움과 평화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로마 14,17)이라고 말씀하신다. 영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하느님 나라의 열매, 즉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나의 응답으로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는 양식이 바로 영성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느님의 말씀에 매일 매일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불림받고 있다. 우리의 삶은 응답하는 삶이기에 그 삶은 아직 다 쓰여지지 않은 미완성 역사책처럼 이제 늘 새롭게 꾸며져야 하는 빈 공간이다. 실상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와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이를



따르거나 거부한다. 구체적인 삶의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결코 들을 수 없다. 만일 그렇지 않고도
들었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주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하
느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야 모든 것
이 확실해서 편리하겠지만,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나
에게 말씀하시기에 문제는 좀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자신의 마
음에서 울리는 소리를 귀여겨 들을 줄 아는 내적 성찰의 자
세와 습관이 꼭 필요하게 된다.

나의 내면의
소리는 종내
말씀하시는 것

내적 성찰의 자세란 삶의 체험을 하느님 사랑의 빛 아래 돌
이켜보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을 꾸준히 계속할 때 자신의
영성 속에 서서히 습관처럼 자리잡게 된다. 오직 하느님의

빛에 의해서만 편견에 사로잡힌 단편적 진리의 본색이 드러나고, 그 밑에 눌러 숨도 제대로 못 쉬던 마음의 진실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결국 기도는 하느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내면에서 울리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자세이다. 하느님께서는 마음 속에서 여러 이미지 또는 다양한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때로는 감각적 느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지성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이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행위에는 내 존재 전부가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주는 행위이다.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이름하듯이, 기도의 행위는 이래서 사랑의 행위가 된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마음 속에 미움이 자리잡기 시작하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기도는 사랑의 샘이며, 삶의 구체적 상황은 바로 그 사랑이 물줄기 되어 흐르는 곳이어야 한다

묵상 성구

시편 95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니,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말아라.

마태 13,1-23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이는 말씀을 듣고 깨